



한국 프랜차이즈 몽골 진출 현황

몽골에서는 5년 전부터 한국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업계 프랜차이즈가 몽골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 프랜차이즈의 강점이기도 한 서비스 부분에서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몽골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최근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GS25 편의점이 몽골 진출을 본격화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내년 상반기 중 1호점을 시작으로 첫 해 50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몽골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뻗어가는 한국 프랜차이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형 유통업체 현황

2014년 이마트가 처음 울란바타르에 문을 열면서 유통업 서비스의 표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고 단숨에 몽골 소비자들 선호하는 매장이 되었다. 아직까지 지점 수가 3개밖에 없지만 내년도에 1개점을 추가적으로 내기 위해 새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홈페이지 www.e-mart.mn 지점수 3 설립연도 2014년
소 유 주 Altai Holding-Sky Hypermarket LLC

- 한국 식품,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일하게 세계 표준을 충족한 업체이다.
- 4번째 지점이 UB에 곧 오픈될 예정이다.
- 2025년까지 30개의 지점을 오픈하고, 500억 투그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homeplaza.mn 지점수 2 설립연도 2008년
소 유 주 I and R Mongolia LLC Home mart Korea

- 몽한 합작회사는 매장에 한국 상품만 파는 매대를 설치해 한국식품전문 판촉을 자주 진행하고 있다.
- 매주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한국에서 들어오므로써 소비자들의 기쁨을 충족시키고 있다.
-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2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편의점

2017년 미국의 Circle K 매장이 들어오므로써 처음 몽골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곧이어 CU 매장이 진출해 Circle K를 제치고 편의점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GS25의 몽골 진출 소식이 들리면서 CU와 양대산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게 되었다.



홈페이지 cumongol.mn 지점수 104 설립연도 2018년
소 유 주 Altai Holding-Sky Hypermarket LLC

- 2년만에 104개의 지점이 오픈하였고, 식품 생산 및 운송 업무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10,000개의 지점을 오픈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권한이 있다.
- 한국에서 자체 CU 브랜드의 식품을 수입하여 몽골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 - 지점수 2021년도 1호점 오픈 예정
설립연도 2020년 소유주 Shunkhlai group

- 내년 상반기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GS25 1호점을 시작으로 내년에 총 50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커피숍

몽골에는 한국 말고도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의 커피숍들이 오픈하였지만 시장의 대부분은 한국의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숍들이 차지하고 있는 추세로, 도시 곳곳에 점포 수를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Caffe Bene Mongolia

종류 한국 프랜차이즈
지점수 31 설립연도 2013년
소유주 Tavan Bogd LLC

- 몽골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이다.
- 프리미엄 싱글 오리진 커피, 벨기에 와플, 이탈리아 젤라토를 제공한다.



Tom N Toms Coffee Mongolia

종류 한국 프랜차이즈
지점수 33 설립연도 2014년
소유주 Korean company

- 자체 기술로 제작한 좋은 향과 맛으로 모든 커피와 프레즐 및 베이커리 제품을 카페에서 직접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SuperSize coffee

종류 한국 프랜차이즈
지점수 5 설립연도 2018년
소유주 -

- 2015년 한국에 새로 설립되자마자 2018년 몽골에 들어왔다.
- 더 큰 사이즈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 및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

패스트푸드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KFC, Pizzahut, Burgerking이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패스트푸드점의 점유율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몽골에는 한국의 롯데리아가 2018년

처음 오픈하였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지점을 내지 않고 2개 지점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Lotteria

홈페이지 www.lotteriamongolia.mn
지점수 2
설립연도 2018년
소유주 Yujintek mongolia.LLC

- 한국 롯데 그룹의 프랜차이즈 지점
- 소고기, 닭고기 및 해산물 버거를 만든다.

베이커리

몽골의 해외 베이커리 중에서 가장 크고, 단기간에 성공한 베이커리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뚜레주르이다. 몽골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 뚜레주르가 입점하고 있어 많은 베이커리 중에 1위 점유율을 견고히 차지하고 있다.



Tous Les Jours

홈페이지 <http://www.tj.mn/>
지점수 10 설립연도 2016년
소유주 Jur Ur LLC

- 최근에야 설립되었지만 많이 알려졌고, 많은 지점을 오픈하였다.
- 평균 이상의 소득을 목표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요 위치에 지점들을 오픈하였다.

Key Point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은 독보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몽골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직 몽골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배달 서비스 업계와 패스트푸드 부문에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몽골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 레스토랑 중 한식당이 가장 많은 편이지만 한국의 유명한 체인 레스토랑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의 인기로 인해 몽골에서의 체인 레스토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